

장백산천지

제22호

2007년3월2일

금요일

우리는 응당 신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

저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과학연구를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종교에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종교를 믿었다. 한 기자가 아인슈타인이 종교에 대한 인식과 견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각하께서는 내가 신을 본적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데 나더러 어떻게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있겠는가고 말할런지 모르겠다. 그렇다. 당신은 오관이 있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갖고 있지만 한도가 있다. 레를 들면 20 헬즈부터 2000 헬즈범위내의 전파를 들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과학적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긴다. 나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은 모종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모종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만일 몇년전에 우리들이 핵존재를 증명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냥 우길 것이니 얼마나 큰 착오인가? 그러므로 오늘 과학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과학이 그러한 경지에까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총체적으로 사람의 오관감각은 한도가 있어서 신의 존재를 감지할 수 없지만 과학은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당 신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적 태도이다.

목격한 《천사》



1985년 7월, 구 소련 우주실험실의 우주비행원은 한 줄로 선 《천사》를 만났다. 7명의 거대한 인형 물체에서 강렬히 내뿜는 광선은 그들의 우주비행선을 전부 감쌌다. 날개 달린 《천사》의 몸은 열은 안개 같은 광환을 지녔다. 이 《천사》들은 줄곧 10분 동안 비행선을 뒤따라 날았다. 비행선에서 찍은 43초 필름을

돌리면 《천사》의 형체를 똑똑히 볼 수 있다.

지금 본래 미신이라고 여기던 것들이 과학에 의해 점차 실증되고 있다. 사실 우리들이 우주진상을 볼수 없는 것은 우리들의 국한된 육안(肉眼)과 굳어진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반추봉에서 손짓하는 《불상》



2005년 7월 31일 6시 5분, 반추봉 남쪽 안개속에 기다란 불상이 나타났다. 불상머리에 적등 황록청남자 칠색으로 이루어진 광환이 눈부시었다. 한 녀사가 풍풍 뛰면서 불상을 향하여 런속 손을 저으니 불상도 런거퍼 손짓했다. 이것은 세인들에게 불법이 인간세상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눈물을 흘리는 불상



근년에 세계각국에서 성모상, 예수상, 관세음불상, 성영상들이 눈물을 흘렸다.

2003년 1월 17일, 대만 고웅시 한 관세음불상 오른쪽 눈밑에 눈물자국이 나타났는데 여러차례 비를 맞아도 씻기지 않았다.(위사진) 왜 불상들이 우는가? 머지 않아 인간에 비참하고도 무서운 일이 발생 될 것임을 세인들에게 예시 해주고 있다.

소생한 성모상



2005년 11월 24일 일요일, 이탈리아 한 아빌라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던 수천명 회원들이 소생한 성모상을 목격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성모상 얼굴이 갑자기 변하면서 몇가지 동작을 했다는 것이다.

우담바라꽃이 핀 불상



2005년, 한국 몇곳 선종절에 있는 불상머리에 우담바라가 피었다. (흰점 모양)불경의 기재에 의하면 우담바라는 3000년에 한번씩 피는데 전륜성왕(转轮圣王)이 인간세상에서 정법(正法)함을 의미 한다고 했다.



박해로 세상든 대법제자 상영록

흑룡강성 목란현 대법제자 상영복은 2004 년 7 월 26 일, 그의 집에 불법침입한 목란현 제 1 파출소 **강압** 등 악경들에 의하여 랍치된 후 할빈 장린자로교소에서 박해를 받았다. 로교소에서도 악경과 범인들에게 여러차례 심한 구타를 당했다. 또 목란현 610 에 의해 비밀리에 정신병원에 갇혀 박해를 받았다. 2006 년 10 월 가족들의 면회시 그가 정신이 이상해졌고 얼굴과 코가 부어있었으며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나중에 그의 두 눈은 실명되었다. 2007 년 1 월 18 일 세상을 떠났으며 향년 44 세밖에 안되었다.

연변대법제자의 원혼

■ 연길시대법제자 강계영(70 세)은 2003 년 3 월 2 일에 연길시조양가파출소 악경들에게 붙잡혔다. 악경들은 그를 호되게 때렸으며 련속 3 일동안 굶기었고 자지 못하게 했다.정신이 황홀해진 강계영은 2003 년 6 월 15 일에 한을 품은채 세상을 떠났다.

■ 돈화시 대법제자 서석균(29 세)은 2000 년 10 월에 북경에 가 상방하고 돌아온 후 (장춘에서 사업)장춘시흥기가파출소 악경들에게 붙잡혀 로동 개조 3 년도형을 받고 선후로 장춘시분진로교소와 장춘시조양구로교소에 갇혔다. 로교소에서 모진 박해를 받은 서석균은 폐병에 걸려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자 2001 년 10 월에 병보석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병이 점점 악화되어 2002 년 5 월에 사망됐다.

■ 연길시 대법제자 형수화(56 세)는 2004 년 4 월 20 일 오전 룡정시공안국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5 월 25일, 그가 집으로 돌아 왔을 때는 심장병이 발작하여 숨이 거이 넘어가고 있었다. 병원에서 구급치료했으나 효열을 보지 못하고 5 월 27 일에 사망했다.

악보를 받은 연길시공안국 국보대대 부대장 초빈

초빈은 이 몇년동안 연길시에서 법륜공을 잔혹하게 박해한 막후 조종자로서 연길시 법륜공학원에 대한 매건의 박해안건은 모두 그가 만든 《방안》 이었다.그는 대대장 허효봉과 함께 비교적 큰 법륜공박해안건에 참여하여 진상자료점을 파괴하고 수십명 법륜공학원들을 체포, 랍치하여 불법판결 했으며 구류소, 로교소, 감옥에 압송하여 박해를 감행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있다.》고 초빈은 악보를 받아 련이어 위병, 당뇨병, 심장병등 여러가지 질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 특히, 2002 년 그는 증계에서 걸려 넘어져 특골 3 대가 뿌러졌다.



미국 더루스시장이 《신당인전세계화교신년만회날》을 선포

2007 년 2 월 4 일, 더루스시장 로라밀러는 미국 더루스시의회를 대표하여 2 월 4 일, 5 일을 《신당인텔레비존방송국전세계화교신년만회날》로 정한다고 선포했다.



신기한 대법



2006 년 12 월 31 일 오후 3 시반쯤 룡녕성 조양시 대법제자와 몸에 호신부를 지니고 이미 《3 퇴》를 한 운전기사가 조양으로 돌아오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기사가 피로로 인해 도로를 벗어나 리정표를 들이박았고,심지어 직경 30cm 정도의 가로수가 뿌리째 뽑혔다. 차는 7-8 미터 정도 돌진한후 우측으로 뒤집혀 길옆으로 떨어졌다. 차량은 현장에서 폐기되었지만 대법제자와 운전기사는 아무 위험이 없었다. 사고 현장 주변에 몇십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곳은 사고다발지역으로 지금까지 차만 훼손되고 사람은 무사한 경우는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제자가 자신의 경험을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알리고 법을 실증하자 군중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대법의 신기함과 대법의 위력에 찬탄했다.

중공의 서적, 그림, 기발, 마크등을 소각할데 관한 창의서

몇십년래 중공의 사상과 선전이 사회의 매개 모세혈관까지 침투되었으며 중공의 사악한 령체는 사회의 매구석까지 통제하지 않는곳이 없다. 각 단위, 매 가정마다 대량의 중공의 서적, 초상 및 음향선전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중공의 주입과 세뇌하에 민중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당의 론리대로 사유하고 행동하였다. 서양에서 수입된 공산유령이 중국에 가져다준 것은 기아, 사망, 전쟁등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이었다.

천진한 사람들은 아직도 중공당두목의 초상을 차안에 걸어놓고 《방토》를 한다. 이것은 정말 재난의 화근이다. 공산당의 물품들은 수시로 사악을 발산하여 인민들을 독해시킨다.

이에 대기원은 특별히 창의를한다. 공산당의 일체 서적, 초상, 조각등을 소각해버리고 공산당의 기발, 당마크등 물건들을 청리하여 사악한 령체 부체가 생 존할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리자.

대륙의 광대한 민중들이여, 우리 모두 공산당이 매 가정에 뽀친 마귀의 흔적을 청리해버리고 공산사령 (邪靈)의 통제속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행복한 래일을 개척하자.

대기원 2005 년 3 월 22 일